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19일(월) 총 5매		
담당 부서	국제평화협력 담당관실	담당자	• 아시아팀장 • 담당자	명창준 이다혜	☎440-3201 ☎440-320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호주 시드니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의지 다져
- 도시재생 모델지역·항만재생 사업지구 등 시찰, 인천과 접목해 사업 추진 -
- 시드니 시장 만나 양 도시 간 교류 강화 및 활성화 제안 -

해외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이 두 번째 방문지인 호주 시드니에 도착해 일정을 이어갔다.

유정복 시장은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 (APMCDRR*)’가 열리는 호주 브리즈번으로 가기 전에 도시재생 사례 등을 둘러보기 위해 시드니를 방문했다.

* Asia-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시드니 방문 첫 날인 18일에는 도시재생 모델지역과 항만재생 사업지구 등을 둘러봤다.

시드니의 항만지역 재개발사업 지역인 달링 하버(Darling Harbour)는 ‘황폐한 정박장’에서 ‘국제적 해양 위락지’로 발돋움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수변 연접부지에 국립해양 박물관, 시드니컨벤션센터, 오페라하우스 등 상업, 문화, 페리어객 시설만 허용해 개발한 지역이다.

이후 방문한 록스(Rocks) 지역은 시드니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한 곳으로, 시드니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다. 시드니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의 하나로 시드니의 살아 있는 역사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음 일정으로 유 시장은 강홍원 시드니 한인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만나 타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현지 한인기업들의 상황을 청취했다.

시드니 방문 둘째 날인 19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드니 무역관을 방문해 현지 무역상황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 등과 관련해 코트라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드니 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교류 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과 시드니는 항공과 항만 등 인프라 여건이 유사한 도시로서 양 도시가 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시외교 사업을 펼쳐 나가자”고 제안했고, 클로버 무어 시장도 “기후변화와 도심재생 사업에서 두 도시가 좋은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화답했

다.

이어 유 시장은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춰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라며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 초일류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에 방문해 달라”고 무어 시장에 초청 의사를 밝혔다.

시장 면담을 마친 유시장은 시드니 대표적인 도시재개발 사례지역인 바랑가루(Barangaroo)를 방문했다. 바랑가루는 옛 산업지역 0.22km²를 상업시설 위주로 재개발하는 신흥경제지구로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지구의 50% 이상을 공용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대표적 친환경적 도심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다.

양 일 간의 시드니 일정을 마친 유정복 시장은 마지막 방문지인 브리즈번으로 이동해 아태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그 밖의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8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항만지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국제적 해양 위락지로 변한 달링 하버(Darling Harbour) 인근 오페라하우스를 시찰하고 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8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시드니 한인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9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클로버 무어 시장과 도시재생 경험 공유 및 양 도시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